韓國光復軍과 미 OSS의 合作訓練

金 光 載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1. 머 리 말
2. 合作訓練 경위
3. 合作訓練 전개과정
4. 訓練過程의 제문제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40년대 전반기 大韓民國 臨時政府(이하 臨政)의 독립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韓國光復軍(이하 光復軍)의 군사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군의 군사활동 가운데에서도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은 1945년 美國 戰略諜報局(OSS : Office of Strategic Services)[1]과 공

1)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는 '전략첩보국', '전략정보처', '전략사무국' 등의 명칭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OSS'라고 하는 약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동으로 전개한 한반도진입을 위한 합작훈련이었다. 하지만 광복군과 OSS의 합작훈련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학문적으로 검증되기도 전에 미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해방 이후 간행된 독립운동사 관련 통사류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나[2] 1차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그 후 지금까지 선학들의 광복군 관련 논문들이 많이 축적되어 왔다.[3] 그러나 OSS합작훈련에 한정하여 볼 때, 그 대부분은 당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위의 통사류나 관련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대동소이한 내용과 결론을 보이고 있다.

한미 합작훈련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인 접근은 韓詩俊에 의해 이루어졌으며,[4] 그에 의해 합작훈련이 시작되는 시기, 대략적인 훈련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OSS문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작훈련 전개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광복군의 한미합작훈련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나 위상정립보다

---

2)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대한민국 공보처, 1949) ; 애국동지원호회, 『한국독립운동사』(195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제6권, 1975).

3) 지면 관계상 그 주요한 것들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朴成壽, 「광복군에 대하여 - 소위 '準繩九項'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3, 1967(『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에 「광복군과 임시정부」로 재수록됨) ; 秋憲樹, 「중일전쟁과 임정의 군사활동」, 『아세아학보』 11, 1975 ; 李鍾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사론』 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 趙一文, 「광복군의 조직과 대일선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논총』, 영남대출판부, 1988 ; 盧景彩,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88 ; 李延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金昌洙, 「大韓民國臨時政府의 軍事活動」, 『한민족독립운동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0 ; 李炫熙, 「중경임정과 한국광복군연구(下) - 그 활동과 국내진입작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1992 ; 金祐銓, 「韓國光復軍과 美國OSS의 共同作戰에 관한 硏究」, 『朴永錫敎授華甲紀念論叢』, 1992 ; 趙恒來, 「重慶時代의 大韓民國臨時政府와 韓國光復軍」,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歷史的 照明』, 국가보훈처, 1997.

4) 韓詩俊, 『韓國光復軍 硏究』, 一潮閣, 1993 ; 「한국광복군과 연합군의 공동작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그외에도 韓詩俊은 한국광복군 관련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는 먼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5]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태평양전쟁기 中國 西安에서 광복군 第2支隊와 OSS가 전개한 합작훈련의 전개과정에 한정시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광복군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끝으로 본고는 방선주 선생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굴한 'OSS문서'[6]를 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 合作訓練 경위

1940년 9월 17일, 臨政의 국군으로 창설된 韓國光復軍은 처음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 참여에 전력을 기울였다.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는 연합국 특히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 적극적인 戰時參戰外交를 전개하였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이던 미국정부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일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5) 金光載, 『韓國光復軍의 活動 硏究 - 美 戰略諜報局(OSS)과의 合作訓練을 중심으로- 』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9. 필자는 학위논문에서 OSS합작훈련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계기와 경위, 전개과정, 훈련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합작훈련에 대한 임정내부 각 세력의 입장, 중국 및 미국정부·OSS측의 입장이나 의도, 또한 해방직후 OSS훈련을 둘러싼 임정 및 광복군 지도부, 나아가 OSS의 동향, 특히 해방 이후의 합작훈련의 변천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6) 방선주, 「美洲地域에서의 韓國獨立運動의 特性」, 『韓國獨立運動의 地域的 特性』 光復節 제48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6주년 기념 제7회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1993, p. 124. OSS문서 관련정보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 : //gopher. nara.gov) 또는 다음의 글이 유용하다. Bradley F. Smith, "The OSS and Record Group 226: Some Perspective and Prospects"(George C. Chalou, ed., *The Secret War: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in World War II*, Washington, DC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2).

위해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45년 초부터 광복군과 미국 OSS의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韓國光復軍(이하 광복군)과 OSS의 합작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계기는 194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7] 1944년 10월, 광복군 第2支隊長 李範奭은 中國戰區 OSS의 秘密諜報課(SI, Secret Intelligence Branch) 책임자에게 광복군과 OSS의 합작을 제의하였다. 그는 광복군 대원들의 美軍內 근무를 제의하였고, 선발된 韓人集團을 훈련하여 미군을 위한 전략적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장래 한국에서의 연합군의 작전을 돕기 위한 혁명세력으로서 한국내 지하세력을 조직화하고 이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된 한인집단을 한국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이범석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첩보침투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 대한 침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8]

이때 중국 OSS 비밀첩보과에서는 주로 싸전트(Clyde B. Sargent)[9] 대위가 이범석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범석과 싸전트는 여러 차례 만나 양측의 합작을 협의하였다. 이범석은 싸전트에게 일본군에서 탈출한 한인청년 수백 명을 미국이 훈련시켜 연합군의 대일전쟁에 투입할 것을 역설하였다.[10]

1945년에 들어서 OSS에서도 한국인들을 대일작전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

7) 「光復軍 第2支隊에 對한 美國側 援助에 關한 件」,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4. 4. 29(秋憲樹, 『資料 韓國獨立運動』 3, 延世大 出版部, 1973, pp. 224~225).

8)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2, 臨政篇 Ⅶ, 1993, p. 261)

9) 鄭容郁, 『1942~47年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政府形態 構想』,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p. 55. 싸전트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중국통(China Hands)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OSS 정보장교로, 일본 패망후에는 미군정에서 활동했다.

10) Clarence N. Weems, "American-Korean Cooperation (1941-1945) : Why Was It So Little and So Late?"(A Paper submitted to Columbia University Seminar on Korea, February 20, 1981), p. 37.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광복군 중에서 요원을 선발키로 구상하였다. OSS는 전략상 "비밀첩보원들이 일본으로 침투하는 기지"로서 한반도를 중시하고 있었다.[11] 즉, 한국은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 지식은 단편적이고 부적절하며 전략 및 전술 첩보차원에서 사실상 침투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월 31일, 광복군과 OSS의 합작이 급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바로 일제에 의해 중국전선에 학병으로 끌려왔다가 탈출한 한인청년들이 중경의 臨政으로 찾아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중국이나 미국 등 연합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13] 국내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일본군에서도 복무하였기 때문에, 정보의 원천으로서 이들의 가치는 매우 컸다. 또한 OSS도 이들 학병 출신 광복군 대원들의 존재에 주목함으로써 광복군과 OSS의 합작교섭은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한국인을 첩보원으로 활용한다는 OSS의 계획은 광복군과 연계한 '독수리작전'의 형태로 구체화 되었다.[14] '독수리작전'(Eagle Project) 案은 1945년 2월 14일 중국전구 OSS의 비밀첩보과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었다.[15] 그리고 2월 27일 중국주재 OSS 비밀첩보 담당자인 헬리웰 대령의 명의로 워싱턴 OSS의 일본·중국과장에게 보고되었다.[16] 2월 28일 OSS의

---

11) 「중국에서의 전략정보활동에 대한 총체적 특수계획실시 연구 -한국편-」, 1945. 5. 19 (국편, 앞의 자료 21, p. 85).

12)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 244).

13) 『中央日報』(重慶), 1945. 2. 6 (秋憲樹, 앞의 자료 2, p. 340).

14) 'Koreans', 1945. 3. 26 (국편, 위의 자료 21, p. 176) ;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不發 독수리작전 1945년 여름」, 『국정신문』(공보처 발행, 1995년 6월 7일(제330호). 작전명칭은 처음에는 '한국인작전'(Korean Project)이었고, 후에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으로 변경되었다.[1]

15)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p. 243~272).

16) 「독수리작전」, 1945. 2. 27(국편, 앞의 자료 21, pp. 171~172).

작전회의에서 검토 후 승인되었으며,[17] 3월 1일 중국전구 OSS의 작전장교 윌리암 데이비스((W. P. Davis) 대령은 OSS 총수 도노반에게 승인을 요청하였다. 3월 3일 도노반은 중국 주둔 미군총사령부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3월 13일 이전 중국 주둔 미군총사령관인 웨드마이어가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1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안 결정된 '독수리작전'은 다시 임정 및 광복군과 협의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독수리작전 계획서에 의하면, 처음에는 60명의 요원을 선발하여 3개월 동안 첩보·통신훈련을 실시하여, 그 가운데에서 45명의 적격자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요원들을 훈련시킨 후 한반도의 5개 전략지점(서울, 釜山, 平壤, 新義州, 淸津)에 침투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지역과 그룹 및 인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동북부의 淸津 지역 : 淸津 그룹(3명의 요원), 雄基 그룹(3명)
② 서북부의 新義州 지역 : 新義州(3명), 다사도(3명)
③ 중북부의 平壤 지역 : 平壤(3명), 元山(3명)
④ 중남부의 서울 지역 : 서울(3명), 仁川(3명)
⑤ 남부의 釜山 지역 : 釜山(2명), 鎭海(2명), 木浦(2명)[19]

이들의 주요 임무는 각 지역의 해군기지, 병참선, 비행장을 비롯한 군사시설, 산업시설, 교통망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무가 부여되었다. 아울러 후일 이들에 의한 첩보망이 뿌리를 내리고, 연합군의 북상이 한반도나 일본에 육박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수집 외에도 지하운동의 규모와 활동 및 한국인의 의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인의 대중봉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7) 'Minutes of Operations Committee Meeting(1945. 2. 28)', 1945. 3. 1(국편, 앞의 자료 25, p. 517).
18) 韓詩俊, 앞의 책, p. 275.
19) 「위의 계획서」(국편, 앞의 자료 22, pp. 252, 254).

나아가 이들 5개 지역에서의 작전 성공 여하에 따라, 5개조의 추가 편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훈련 주관부서는 OSS 중국지부 비밀첩보과(SI)이며, 연구분석과(R&A)와 교육훈련과(S&T)의 공조체제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훈련지원을 위하여 OSS 소속의 정보·통신·재정 등 장교와 하사관 등 7명이 동원되며, 장차 작전이 확대될 경우 장교 10명과 하사관 12명을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20] 훈련 예산은 별도의 장비 이외에 매월 25,000달러를 책정하였다.[21]

훈련기간은 3개월로서 처음 2개월은 西安 杜曲에서 첩보훈련에 중점을 두며, 나머지 1개월은 昆明으로 장소를 옮겨 통신훈련을 실시키로 계획하였다.[22] 한반도의 침투방법으로는 山東半島를 출발하는 海路, 혹은 東北地方을 거치는 陸路 등의 경로를 설정하였다.[23] 그리고 일정기간 비밀첩보공작으로 제한하고,[24] 장래의 확장시기에는 한국에서의 첩보공작을 더욱 확대하며 나아가 일본으로의 진입이나 비밀첩보활동과 특수게릴라활동의 통합을 구상하는 단계로까지 확대키로 계획되었다.[25]

한편, 1945년 1월 이범석의 초청으로 싸전트는 중국 전구에 배속된 한국계 미군 鄭雲樹 소위와 함께 서안의 제2지대 본부를 방문하였다.[26] 방문목적은 '한국에서의 미군 정보작전을 위한 제2 지대의 잠재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OSS는 제2지대의 전반적 士氣·개개인의 능력·단결

---

20) 위의 자료, pp. 266~268.
21) 위의 자료, p. 272.
22) 위의 자료, p. 253 ; 'Eagle Project', Bird → 중국주둔 미군총사령부, 1945. 3. 13(국편, 앞의 자료 21, p. 183) ; Campbell → Duncan C. Lee, 1945. 3. 26(국편, 앞의 자료 22, pp. 317~318).
23) 「중국에서의 전략정보활동에 대한 총체적 특수계획실시 연구-한국편」, 1945. 5. 19(국편, 위의 자료 21, pp. 106~107).
24) 국편, 위의 자료 21, p. 93, 113.
25) 국편, 위의 자료 22, p. 254, 258, 268.
26) Weems, 앞의 글, p. 37.

심 등을 조사한 결과, 제2지대가 OSS 훈련과 작전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27] 그리고 제2지대 대원들도 첩보요원으로서 '안성맞춤'(made-to-order)이라고 높이 평가되었다.[28] 아울러 제2지대가 주둔하고 있는 西安 杜曲 일대가 OSS 비밀훈련에 적합한 장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29] 제2지대 지대장 이범석에 대해서도 "臨政 내부의 政爭에 초연하며 對日 군사문제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그의 '군사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30]

또한, OSS는 임정 및 광복군과의 합작을 위한 제반 여건이 바람직하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우선 중국정부가 임정의 군대인 광복군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해 준 것이 광복군과의 합작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광복군이 재정적으로 중국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만약 광복군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31] 중국정부가 광복군 제2지대와 OSS의 합작훈련을 '당혹'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리고 임정도 내부적으로 '정쟁'이 크게 완화되었고, 합작상대인 한국독립당 계열의 경쟁세력이었던 민족혁명당의 金元鳳도 중국 혹은 인도주둔 영국군과의 합작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한인들과 합작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32]

1945년 4월 1일, 군사합작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위해 양측의 회합이 이루어졌다. 광복군측에서 李靑天·李範奭·閔石麟·鄭桓範, OSS측에서 싸전트가 참석하여 군사합작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33] 싸전트는 "앞으로

27) 韓詩俊, 앞의 책, p. 277.

28)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 261).

29) Weems, 앞의 글 p. 37.

30) 'A Short Personal History of Important Leader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1945. 5. 7(국편, 앞의 자료 22, pp. 539~545).

31) 高珽烋,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주지역 독립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회 주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1999년 4월), p. 120.

32) 'The Eagle Project for SI Penetration of Korea', Prepared by SI Branch, OSS, CT, 1945. 2. 24(국편, 앞의 자료 22, pp. 264~265).

실행될 한·미 합작이 모든 한국인 지도자들과 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범석은 "기획된 작전들에 관해 대한민국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전적으로 작전에 따르겠다"고 언급하였다.[34]

이어 4월 3일 아침 싸전트가 임시정부 청사로 金九 主席을 방문하였다.[35] 이 자리에는 이청천 사령관, 제2지대장 이범석, 제3지대장 金學奎, 정환범 고문(통역)이 참석하였다. 김구 주석은 최근 安徽省 阜陽에서 도착한 37명의 한국청년을 포함한 가용인력을 확보할 것을 약속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이범석 장군과 싸전트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을 승인한다"고 하여 광복군과 OSS의 군사합작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아울러 김구 주석은 싸전트에게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시 임정요원의 동반을 미군 당국에 제의토록 요청하였다. 김구는 이를 통해 미군의 필리핀 공격시 맥아더가 필리핀 대통령 및 고위관리들을 동행함으로써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36]

같은 날 오전, 이청천·이범석·민석린·李復源·嚴恒燮·劉振東 등은 싸전트와 함께 重慶에서 남쪽으로 2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土橋의 한 인촌을 방문하였다. 싸전트는 최근 안휘성 제3지대에서 온 37명의 광복군 대원들(주로 학병출신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들 전부를 西安 杜曲으로 데리고 가서 독수리작전에 참가시킬 것을 이범석에게 제안하였다.[37] 4월 5일에도 싸전트와 놀렌버그(Bernhard Knollenberg)는 임정을 방문하였다. 이날 김구·조소앙과 OSS 관계자의 대화는 주로 전후 한국의 위상에 관한 것이었다.[38]

---

33) 「싸전트의 비망록」, 작성시기 미상(국편, 앞의 자료 21, p. 189).
34) 국편, 위의 자료.
35) 「싸전트의 비망록」, 1945. 4. 3 (국편, 위의 자료 21, p. 185).
36) 위의 자료, p. 186.
37) 「싸전트의 비망록」, 1945. 4. 3 (국편, 앞의 자료 21, pp. 187~188).
38) 「싸전트의 비망록」, 1945. 4. 5 (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제6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Ⅲ, 1999, p. 652).

한편, 독수리작전 교섭과정에서 임시정부는 미국의 OSS와 광복군의 군사합작을 공식화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고, 교전단체로서 승인받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일본 붕괴시 소련이 시베리아의 수 개 사단에 이르는 '韓人部隊'[39]를 한반도로 투입시킬 것이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임시정부는 미국 정부가 항공편을 제공해준다면 이범석을 워싱턴에 파견하여 이러한 정세와 상황을 설명한다는 계획도 세웠다.[40] 이에 대해 OSS도 시베리아의 '한인부대' 등 소련의 위협에 대하여 러시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범석을 비공식적으로 미국에 파견하여 소련·일본에 관한 고급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양측의 협의내용은 협정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인전투부대'의 조직,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에 의한 '장비제공' 등의 협정내용은 임정이 미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다. 또한 임정 및 광복군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인 지하단체에 대한 훈련」에 의하면, "훈련부서의 기술담당 교관들은 미국측에서 보낼 것이며, 정치담당 교관들과 행정요원들은 한국측에서 파견될 것"[42]으로 제안하였다. 즉, 물질적·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원조를 수용하지만 정신교육은 한국측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합작시 미국측에 흡수되지 않고 주체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임정 및 광복군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측에 三民主義를 강요해 온 사실 등 굴욕적인 과거 경험에서 나온 교훈으로 생각된다.

양측의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임정은 중경의 주중 미군

39) 이 한인부대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pp. 67~68 참조할 것.

40) 'Memorandum on Korean Affairs', 극동 비밀첩보 부서 일본-중국과 → 비밀첩보국장, 1945. 4. 12(국편, 앞의 자료 22, pp. 355~357).

41) 'ARTICLES OF AGREEMENT'(國家報勳處 소장자료); 'Some Suggestive Points for the Agreement'(국편, 앞의 자료 21, p. 172).

42) 「한국인 지하단체에 대한 훈련」(국편, 앞의 자료 21, p. 173).

총사령관 웨드마이어(Albert Wedemeyer)와의 회담을 추진하였다. 4월 11일, 임정 주석 고문 정환범은 OSS의 버드 대령에게 김구 주석·이청천 사령관·조소앙 외교부장 등 3인의 웨드마이어 사령관과의 접견 주선을 요청하였다.[43]

4월 17일 임시정부 주석 김구·외무부장 조소앙·주석 고문 겸 통역 정환범 등의 중국전구 미군사령부에 대한 방문이 이루어졌다.[44] 김구는 미국과의 긴밀한 합작을 요청하였고, 미군측도 한국측의 협력을 희망하였다. 이때 임시정부측은 외무부장 조소앙의 명의로 「미국당국에 요청하는 군사원조 안건에 대한 개요」라는 제안서를 미군측에 제출하였다.[45] 이에 대해 웨드마이어의 참모장 그로스 장군은 임정의 제안에 대해 호감을 표명하면서 조건이 허락하는대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였다.[46] 일찍이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도 여러 측면에서 한인을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었다. 즉, 김구의 방문 이전인 3월 29일 그로스 참모장은 적점령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한국인·만주인 약 10명을 모집, 西安 근처에서 훈련시킨 후 美 空軍地上救助隊의 작전에 투입할 것을 장개석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47]

계속하여 5월 1일, 김구 및 조소앙은 재차 주중 미군사령부를 방문하였다.[48] 김구 등은 미군사령부 참모장 그로스 장군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英文照會 1통을 웨드마이어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영문조회는 "금후 미국측이 군사상 한국측의 협조를 필요로 할 경우, 한국광복군 총사령

---

43) Bird → William McAfee, 1945. 4. 11(대한매일신보사 편, 『白凡金九全集』 제6권, 대한민국 임시정부 Ⅲ, 1999, p. 655).

44)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단의 방문」, 1945. 4. 17(국편, 앞의 자료 21, pp. 190~191).

45) 「미국 당국에 요청하는 군사원조 안건에 대한 개요」, 1945. 4. 17(국편, 앞의 자료 21, pp. 192~193).

46) 국편, 위의 자료.

47) 「韓人 및 東北人의 空軍地上隊募集에 關한 件」, 1945. 4. 12(秋憲樹, 앞의 자료 3, p. 385).

48)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5. 1(秋憲樹 編, 앞의 자료 1, pp. 427~428) ; 「韓情近報」, 軍事委員會 事務廳 → 國民黨 中央秘書處, 1945. 5. 19(胡春惠 著·辛勝夏 譯, 『中國 안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78, p. 157에서 재인용함).

부와 교섭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중국 군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49] 김구와 조소앙이 미군사령부를 방문한 5월 1일은 '9개준승' 폐기통보 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 발효되어 광복군의 지휘권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임정으로 이전된 뜻깊은 날이었다. 그러므로 미군에 대하여 이같이 자신있게 천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50] 김구의 미군사령부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은 임정 및 광복군이 지나치게 중국에 밀착되어 있다는 미국측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였다. 이 영문조회에 대해 중국전구 미군사령부는 "미국측은 다만 김구를 교섭상대로 하며, 이른바 '部長'(軍務部長-인용자) 혹은 '총사령'은 승인하지 않는다"[51]고 회답하였다. 이는 주중 임정의 미군사령부가 군무부장이나 총사령관보다는 광복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임정 주석의 비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광복군과 미국 OSS의 '독수리작전'이라고 하는 군사합작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3. 合作訓練 전개과정

제2지대의 OSS훈련은 제2지대가 주둔하고 있는 西安 杜曲에서 실시되었다. 杜曲은 서안 시내에서 남쪽으로 19.5㎞ 떨어져 있는 곳으로, 제2지대

49) 「韓美關係와 臨政의 最近動態」, 1945. 5. 5(秋憲樹 , 앞의 자료 1, p. 432).

50) 秋憲樹, 위의 자료 1, p. 432.

51) 「最近의 臨政動態」, 未詳 → 中國國民黨 中央執行委員會, 1945. 6. 8 (秋憲樹 編 앞의 자료 1, p. 404). 미군사령부가 임정의 군무부장 김원봉 혹은 총사령관 이청천 등을 배제하고 김구 주석을 교섭상대로 인정한 것은 기존 미국의 對韓政策에 비추어 특기할 만하다. 그러므로 "미국측은 실제 교섭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군사합작을 성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창구를 OSS측의 싸전트 대위와 광복군측의 제2지대장 이범석으로 한정시켰다"(정용욱, 앞의 논문, p. 55)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구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중국정부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부는 '독수리작전'을 위한 훈련기지가 되었다. 이곳은 1945년 4월에 설치된 OSS 서안 야전사령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병참이나 훈련 장교 파견 등에 적합하였다. 그리고 OSS훈련을 받은 요원을 북중국·만주·한반도로 침투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역이었다.

광복군과 OSS는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였다. 이범석과 싸전트가 양측의 지휘관으로서 합동지휘본부를 구축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였다.[52] 또한 미국 요원 외에 훈련진행 등 행정처리를 위해 제2지대 대원들이 기간병으로 선발되어 복무하였다.

임정과 광복군총사령부는 합작훈련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이범석에게 부여하고 전폭적인 후원을 표명하였다.[53] 또한 서안의 이범석도 정기적으로 중경에 와서 김구 주석과 협의하였으며, 특히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에게는 공식적으로 월례보고를 하였다.[54] 한편 OSS측도 자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정승인을 유보하였지만, 유능한 한인요원의 확보나 한반도에 대한 첩보침투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임정이나 광복군측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양자는 점차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합작훈련은 OSS에서 파견된 미국인 교관들에 의해 실시되었고, 그 책임자는 싸전트였다. 싸전트는 5월 11일 두곡에 도착하여 '독수리 야전사령관'에 부임하였다.[55] 독수리 야전사령관은 독수리작전을 실행하기 위한 요원의 모집·훈련·파견·공작활동의 책임과 교관들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또한 사령관은 서안 야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체제를 갖추었다.[56]

---

52) 'Monthly Report for June, Eagle Project', Sargent → Helliwell, 1945. 6. 29(국편, 앞의 자료 28, p. 112).

53) 「싸전트의 비망록」, 1945. 4. 1(국편, 앞의 자료 21, p. 190).

54) 'Communication from General Lee to the Korean Gov't', Sargent → Krause, 1945. 6. 23(국편, 앞의 자료 22, p. 741).

55) 「독수리작전 5월 월례보고서」(국편, 앞의 자료 21, p. 205).

56) Helliwell → Sargent, 1945. 6. 26(국편, 앞의 자료 22, p. 751).

당시 2지대 대원 가운데 OSS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125명 정도였으며, 이들 가운데 50명을 단위로 제1기·제2기의 훈련이 계획되어, 제1기 훈련에 50명이 선발되었다.[57] 그중에는 도쿄에 있던 韓光班 출신 37명 중 19명이 4월 29일 서안에 도착하여 OSS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58] 이들은 일주일간의 예비훈련 과정에서 각자의 자질과 적성이 조사되었으며 그에 따라 임무와 훈련 내용이 결정되었다.[59]

'독수리작전'의 훈련은 첩보공작을 위한 훈련으로 시작되었다. 정규훈련은 5월 21일에 가서야 비로소 '첩보훈련반'과 '통신반(무전교신반)'으로 나뉘어져 실시되었다.[60] 이들에 대한 훈련과목은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61] 학과교육은 매주 단위로 계획되었고, 매주 별도의 시간표가 작성되어 이에 의거한 교육이 실시되었다.[62]

하루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되었고 1주일간의 교육이 끝나면, 그에 대한 시험을 치렀다. 성적이 부진하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방출되기도 하였지만[63] "기초적인 첩보교육과 통신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특히 통신에 있어서 특출하다"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성적은 대체로 우수했던 것으로 보인다.[64]

---

57) 「독수리작전 5월 월례보고서」(국편, 앞의 자료 21, p. 209)에는 "이곳의 전체 한국인 인력은 160명 가량이다. 공식적으로는 125명이 우리 휘하에 있다. 이들 중 50명은 제1기 교육반에 등록되었다. 또 다른 50명이 제1기 교육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독립운동사』(6권, pp. 495~496)에는 盧福善·金奭東이 작성한 「한국광복군 제2지대 연혁」을 바탕으로 하여 제2지대 소속 OSS 훈련단원이 무전반(27명) 및 정보·파괴반(63명)의 90명이었다고 하고 그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연혁」은 해방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8) 韓光班學兵同志會, 『長征六千里』, 1979, p. 111.

59) 張俊河, 『돌베개』(장준하전집 1), 세계사, 1992, pp. 334~335.

60) 「독수리작전 5월 월례보고서」, 1945. 5. 30(국편, 앞의 자료 21, p. 209).

61) 「첩보의 교육과정」, 1945. 6. 23 (국편, 앞의 자료 21, pp. 229~230).

62) 국편, 위의 자료, pp. 231~233.

63) 「독수리작전 7월 월례보고서」, 1945. 7. 31 (국편, 앞의 자료 21, p. 237).

64) 국편, 위의 자료 21, p. 239.

그밖에 12명으로 구성된 무기훈련반(Special Weapon)이 구성되었다. 목적은 독수리기지 주변의 중국인 마을 및 외부 침입자를 막고 독수리훈련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병 훈련이었다. 이 훈련반은 6월 20일경 기본훈련을 마치고, 두 번째 훈련반이 훈련에 들어갔다.[65]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1945년 6월의 교육시간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66]

<표 1> 6월 첫째주(6월 4일~6월 9일) 교육훈련 시간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08 :00~09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09 :00~10 :00	오리엔테이션	첩보보고서 양식	심리전술	일본 경찰첩보대	준비와 돌격	위장
10 :00~11 :00	//	//	//	//	//	//
11 :00~12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12 :00~14 :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4 :00~15 :00	첩보의 중요성	첩보의 가치 및 정보	보고의 문제	잡다한 조사 정보	일본군 전투서열	보고의 문제
15 :00~16 :00	첩보 유형	//	//	//	//	//
16 :00~17 :00	첩보의 흐름과 원천	작전보고의 양식과 내용	//	비행장 정 보	문제점비판	뉴스
17 :00~18 :00	영어	음악	영어	음악	영어	음악

65) 'Monthly Report for June, Eagle Project', Sargent → Helliwell, 1945. 6. 29(국편, 앞의 자료 28, p. 111).

66) 「첩보의 교육과정」, 1945. 6. 23(국편, 앞의 자료 21, p. 231). 그밖에도 국편, 앞의 자료 25, pp. 617~619에도 3개의 시간표가 수록되어 있다.

<표 2> 6월 둘째주(6월 11일~6월 16일) 교육훈련 시간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06 : 10~07 :00	시험	보고시 문제점 비판	모집 및 훈련	일본군 전투서열	독도법	독도법
07 : 10~08 :00	//	독도법	//	//	//	//
08 : 00~09 :00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09 : 00~10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10 : 00~11 :00	정보제공자 훈련	일본군 전투서열	보고문제	독도법	조직	일본군 전투서열
11 : 00~12 :00	인터뷰 과정	//	//	//	//	//
12 : 00~13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13 : 00~16 :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 : 00~17 :00	자세한 정치보고	자세한 경제정보	자세한 경제정보	자세한 심리정보	해안관찰및 해군정보	뉴스
17 : 00~18 :00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운동

<표 3> 6월 셋째주(6월 18일~6월 23일) 교육훈련 시간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06 : 10~07 :00	시험	조직	첩보통신	첩보통신	안전	서신전달
07 : 10~08 :00	//	보고의 문제	//	//	//	//
08 : 10~09 :00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09 : 00~10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10 : 10~11 :00	일본군 전투서열	보고의 문제	일본군 전투서열	지하조직 및 게릴라팀	시험	항공수령
11 : 00~12 :00	//	//	//	//	//	//
12 : 00~13 :00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무전
13 : 00~16 :00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 : 00~17 :00	휴식	해안감시 및 해군정보	폭격보고 : 목표 및 피해 조사	지형 및 해안보고	휴식	뉴스

앞의 시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과목은 첩보 및 통신교육·일본군 전투서열(order of battle)·심리전술·독도법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특히 무전기술의 습득을 위한 통신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지대장 이범석은 독수리작전의 심리전팀과 합동으로 '韓國宣傳委員會'를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OSS 심리전팀과 협동하여 활동했다. 선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문서작성·번역·자문 등 한국에 대한 미국 심리전팀의 활동에 협조하였다.[67]

학과교육을 마친 후에는 야전훈련이 실시된 것 같다. 야전훈련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통신반의 현장훈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전훈련 역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의 훈련에 들어가는 엄격한 과정이었다.[68]

4. 訓練過程의 제문제

1945년 5월부터 합작훈련이 실시되면서 여러가지 훈련과정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한·미 요원간의 의사소통 문제, 훈련기지의 보안문제, 곤명 OSS본부와의 연락 문제, 安徽省 阜陽의 광복군 제3지대와의 무선연락 문제, 미국 요원의 계급 문제, 전방에서 초모된 한인들의 수송 문제 재정 문제, 한반도로의 침투방법 문제, 훈련생 충원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우선 훈련진행시 언어의 제약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노정되었다. 당시 훈련소에서는 영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가 사용되었고, 심지어 러시아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 훈련생과 미국인 요원의 접촉과 지시에는 언제나 통역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어를

67) Evans → Sargent, 1945. 7. 27(국편, 앞의 자료 28, pp. 248~249).
68) 韓詩俊, 앞의 책, p. 286.

유창하게 구사했던 한국계 미군 장교 정운수 소위와 같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통역요원의 부족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합작훈련의 성공적 종료 여부는 중국전선에 배치될 예정으로 있던 한국계 미군 요원의 서안 도착 날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될 정도였다.[69]

이러한 언어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 영어학습이 실시되었다. 훈련생 50명 중 30~40명의 요청과 이범석 지대장의 제안으로,[70] 훈련교관 마이어즈(Robert Myers)가 영어학습반을 운영하였다.[71] 그는 5월 23일까지 매일 2시간씩 수업하였다. 영어반은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뉘었으며, 학생들도 적극 수업에 임하였다. 고급반의 경우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루 1시간씩 수업하였다.[72] 이범석 지대장도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였다.[73] 마이어즈는 "한인 훈련생들의 적극적인 영어학습이 장래 독수리훈련을 위해 큰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였다.[74]

언어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계 미군이 서안으로 오게 되었다. 일찍이 1945년 3월, 주중 OSS는 워싱턴 본부에 독수리작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한국계 미군장교 및 사병의 차출을 요청한 바 있었다.[75] 이에 워싱턴 본부는 한국계 미군에 대하여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장교 1명, 사병 9명 등 10명을 주중 OSS의 독수리훈련에 배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들의

---

69) 'Report # 1 on S&T Activities re Eagle Project', Donohue → Krause, Helliwell, Sargent, 1945. 5. 29(국편, 앞의 자료 25, p. 613).

70) 김준엽, 앞의 책, p. 404.

71) 김준엽, 앞의 책, p. 397.

72) 'Activities from May 11 to May 23', Myers → Sargent, 1945. 5. 28(국편, 앞의 자료 25, p. 607).

73) Monthly Activity Report, Myers → Sargent, 1945. 6. 25(국편, 앞의 자료 28, p. 98)

74) 'Activities from May 11 to May 23', Myers → Sargent, 1945. 5. 28(국편, 앞의 자료 25, p. 607) ; 'Report # 1 on S&T Activies re Eagle Project', Donohue → Krause, Helliwell, Sargent, 1945. 5. 29(국편, 앞의 자료 25, p. 613).

75) 'Eagle Project', Bird → 중국주둔 미군총사령부, 1945. 3. 13(국편, 앞의 자료 21, p. 183).

임무는 독수리작전을 위한 훈련에서 요원 선발 및 훈련 교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룹의 지휘자로 咸龍俊(Hahm) 대위가 위촉되었다.[76] 이들은 6월 말, 함대위의 인솔하에 중국전선으로 출발하였고,[77] 8월 초에는 이미 독수리훈련기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78] 이들은 1945년 8월 초 현재, 미국측 교관 23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상으로 40대가 8명, 30대 1명, 20대 1명이었다. 40대가 대부분인 것은 미국내 한인들 가운데 젊은층의 군입대 기피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대개 1945년 2월에 미군에 입대하였고, 학력도 대부분 대졸이었다. 이들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4〉와 같다.[79]

한편 훈련기지의 보안유지도 비밀훈련의 특성상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서안에는 일본의 밀정들이 잠입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延安이 가까웠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도 활발하였다.[80] 광복군 제2지대 본부가 서안 시내에 있다가 杜曲으로 이전한 것도 일제 밀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81] 그밖에도, 독수리기지는 중국 정보조직의 침투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정부에 알려지면 곧 일본에게도 알려진다고 하는 인식 때문

76) 'Progress Report Far East Division', SI Branch, March, 1945(국편, 앞의 자료 25, p. 501).

77) 'Koreans for Eagle Project', Campbell → Heppner, 1945. 6. 13(국편, 앞의 자료 22, p. 722).

78) 'Roster of American Personnel on duty with this Headquaters as of 2400 hours', 1945. 8. 7(국편, 앞의 자료 28, p. 274). 한편 임정의 『獨立新聞』(제 7호, 1945. 7. 20)도 장래 상당수의 한국계 미군이 중국에 와서 훈련책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도하였다(國家報勳處, 『韓國獨立運動史料－楊宇朝篇』, 1999, pp. 582~583).

79) 이 표는 위의 자료 및 동 자료, pp. 57~68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이들의 이름은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咸龍俊과 徐相福, 李昌熙, 李慶善, 남궁탁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한국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방 직후 함용준과 서상복은 광복군 정진대의 국내진입때 동행하였다(李思民(李慶善), 『중군기』; 宋南憲, 『解放 三年史』 I, 까치, 1977, p. 34).

80) 김준엽, 앞의 책, p. 403.

81) 김준엽, 위의 책, p. 399. 일례로, 1945년 서안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8명의 일본 첩보원이 체포되기도 하였다(Maochun Yu, OSS in China, p. 217).

<표 4> 1945년 8월초 西安에 도착한 한국계 미군 명단

이 름	계급	연령	교육	입대시기	비 고
咸龍俊 (Ryong C. Hamm)	대위	42	대졸	1944.12.20	매우 우수함, 중국 국민당정부 및 중경임시정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음
徐相福 (Sang P. Surh)	사병	38	신학교	1945. 2.14	친화력 및 리더십 우수, 조직능력도 있음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본을 잘 알고 있음
David H. Kim	사병	45	대졸	1945. 2.15	전직 교사로 친화력 뛰어남
Shoon K. Kim	사병	43	대졸	1945. 2.15	요원의 모집 및 훈련 업무에 적합함
李昌熙 (Chang H. Lee)	사병	43	대졸	1945. 2.14	첩보능력이 우수함
Harry Lee	사병	23	고졸	1943	미국태생의 한국인, 가장 젊음 한인단체와의 연락업무에 적합함
Frank Lee	사병	40	대졸	1945. 2.15	번역 및 통역업무에 추천됨
李慶善 (Kyung S. Lee)	사병	45	신학교	1945. 2.14	목사 출신으로 일찍이 한국에서 4년간 옥고, 약 2년간 중국 만주지방을 여행, 상해에 체재했음
남궁탁 (Peter T. Namkoong)	사병	41	대졸	1945. 2.14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에 능숙함
Chester H. Kim	사병	41	대졸	1945. 2.14	뛰어난 외국어 능력으로 번역부문에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

이었을 것이다.[82]

때문에 한미양측은 독수리훈련기지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투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한·미 합동지휘체제였기 때문에, 독수리 작전에 대한 보안문제가 다소 미묘하기도 하였으나 양측의 협조로 원만히 해결되었다.[83] 처음에는 미국인이 경계를 담당하였으며, 싸전트와 이범석

82) 조규하·이경문·강성재 공저, 『南北의 對話』, 고려원, 1987, p. 17.
83) 국편, 앞의 자료 28, p. 116.

은 특히 야간 경계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범석과 싸전트는 훈련생들이 경계근무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경계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훈련과정(Special Weapon)을 만들었다.[84] 제1기, 제2기 무기훈련에서 각각 12명, 모두 24명의 훈련생들은 30㎜ 구경의 스프링필스, 30㎜ 구경의 쟌스 반자동 소총, 그리고 45㎜ 구경의 경기관총의 조작과 사격훈련을 받았다. 무기훈련을 끝낸 훈련생들은 사격시험을 거쳐 무기소지자격을 부여받았고, 18명은 경비대로 선발되었다.[85]

또한 이범석과 싸전트는 훈련의 보안을 위해, 업무상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2지대 대원들의 서안시내 외출을 최대한 억제하였다.[86] OSS 훈련을 받는 대원들 외에 제2지대의 일반 대원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대원들의 서안 외출시 훈련내용에 대한 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처음으로 우편검열을 실시하였다. 이범석과 싸전트는 우편검열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그 실시에 동의하였다. 그밖에도 제2지대는 파우치나 무선통신 시설이 없어 중경 임정과의 연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통신보안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제2지대는 독수리작전과 관련하여 OSS의 파우치,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중경의 임정과 연락하였다.[87] 그럼으로써 이범석 등은 임정과 용이하게 연락할 수 있는 고정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훈련과정에서 한국측은 여러가지 고충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昆明 OSS본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6월 중순, 이범석은 곤명의 OSS 비밀첩보(SI) 책임자 헬리웰(Paul Helliwell) 대령에게 제반

84) 위와 같음.

85) 「1945년 6월 25일~7월 25일 동안의 보안보고」, Koger → Sargent, 1945. 7. 27(국편, 앞의 자료 21, p. 258).

86) 'Monthly Report for June, Eagle Project', Sargent → Helliwell, 1945. 6. 29(국편, 앞의 자료 28, p. 114, 117) ;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不發 독수리작전 1945년 여름」, 『국정신문』(공보처 발행, 제330호, 1995년 6월 7일).

87) 국편, 위의 자료 28, pp. 116~117.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하는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88]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광복군 제2지대 독수리훈련본부와 昆明 OSS본부의 직접적인 연계 설정
② 미국측 교관의 계급 승진
③ 전방에서 초모된 한인 대원의 西安으로의 수송
④ 阜陽 제3지대와의 무선연락 편의 제공
⑤ 훈련 및 활동경비의 증액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실제 훈련과정에서 절실하게 제기된 문제들이었다. 첫째, 독수리 야전본부와 昆明 OSS본부와 직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다. 독수리 야전본부는 처음부터 서안 야전본부의 지휘하에 있었으며 곤명 본부와의 전달계통은 서안 야전본부의 통신대를 경유하여야만 하였다.[89] 때문에 독수리 야전본부와 서안 야전본부는 마찰을 빚었고 이것이 독수리작전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다. 이범석은 독수리 훈련기지가 직접 곤명 본부와 연계하는 것이 업무의 능률, 보안의 유지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이 문제는 이범석의 건의대로, 독수리 야전본부는 한국관련작전, 서안 야전본부는 화북지방의 첩보작전을 전담하는 것으로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럼으로써 독수리 야전본부는 서안 야전본부의 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곤명 OSS본부와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 교관들의 계급이 너무 낮으므로 훈련생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 요구였다. 계급문제의 경우, 장군인 이범석과 대위인 싸전트와의 관계, 또 미국인 교관들의 계급이 일부는 위관급, 일부는 일반 사병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 요원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

88) Lee Bum-suk → Helliwell, 1945. 6. 16(국편, 앞의 자료 28, pp. 40~43).
89) 「독수리작전 5월 월례보고서」, 1945. 5. 30(국편, 앞의 자료 21, p. 210).

가 종종 있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광복군 대원의 대부분이 장교였다는 사실은 미국측 요원들의 관계에서 미묘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었다.[90] 따라서 이범석은 한·미 간의 협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싸전트 대위 이하 미국 요원들의 승진을 요청하였다. 또한 싸전트도 수시로 휘하 교관들의 진급을 요청하는 전문을 곤명 본부에 보내기도 하였다.

셋째, 전방에서 招募된 한인청년들을 서안으로 수송하는 문제였다. 전방 광복군 지대에서는 일본군을 탈출한 학병출신들이 많았는데, 그중에는 자질있는 대원들도 많았다. 그러나 서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이범석은 현재 적정보의 원천이자 OSS훈련을 위한 인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군에서 탈출한 한인청년들의 비행편 제공을 요청하였다.

넷째, 안휘성의 제3지대와 무선통신을 구축하여 두 지역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문제였다.[91]

다섯째, 재정 문제였다. 독수리 야전본부는 곤명 OSS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훈련비용이나 야전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공작금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범석은 훈련 및 첩보활동에 필요한 특별예산을 청구하였으며 유사시를 대비해 훈련본부에 충분한 현금의 비축을 요청하였다.

훈련이 마무리되는 7월에 접어들면서, 훈련받은 요원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동시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한반도로 침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 점은 곤명 OSS의 휘태커(Whitaker) 대령이 워싱턴 OSS본부에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지역에 침투하기란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92]

서안에서 출발하여 일본군의 경계를 뚫고 한반도로 침투하기란 용이한

90)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앞의 글 (제 330호).
91)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학위논문 제2장 제2절 '韓國光復軍 第3支隊의 合作訓練'을 참조할 것.
92) 「Whitaker의 6월 보고서」(로버트 마이어즈, 위의 글에서 재인용함).

문제가 아니었다. 일본군의 경계선을 넘는다고 해도 汪精衛 괴뢰정부 통치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93] 육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해로로 침투할 것인가도 여전히 결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연합국의 한반도내 '폭동유발', 비밀요원 투입 등에 대비한 일제의 경계망을 뚫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작전성공 여부의 관건이었다.[94]

일찍이 워싱턴의 에이플러는 중국본토를 경유한 비밀요원의 한국침투에는 요원과 장비의 수송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적하였다.[95] 즉, 중국본토 경유시 장거리 여행이 불가피하며 게다가 무전장비를 성공적으로 운반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며, 설혹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버마에서 실행했던 것처럼 '일련의 위장된 소규모 경비행기 착륙장'(a chain of small hidden and camougflaged fields, for the airplanes)을 건설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소규모 착륙장이 건설되면, 중국의 주기지에서 요원과 장비를 낙하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96]

7월 초, 독수리기지는 곤명의 OSS본부에 대해 해안 침투를 위한 잠수함을 요청하였으나, OSS본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97]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된 것이 공중투하였다. 싸전트는 7월 중순경 이범석에게 훈련성적이 좋고 건장한 대원 12명을 선발하여, 곤명에 있는 낙하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선발된 12명의 대원과 제2지대의 康楨善 소령·마이어즈 등은 8월 초 곤명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낙하산훈련을 끝내는 즉시, 곧바로 안휘성의 立煌으로 가서 국내침

93)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앞의 글 (제 331호).
94) 'Manchurians and Koreans', 1945. 6. 14(국편, 앞의 자료 22, p. 724).
95) 'Secret Agents Entering Via China', Eifler → Donovan, 1945. 3. 9(국편, 앞의 자료 25, p. 524).
96) 위와 같음.
97)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앞의 글.

투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곤명의 낙하산훈련소에 등록하자마자, 일본의 항복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하산훈련은 무산되었다.[98]

한편 1945년 7월 초, 장차 한반도 진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山東半島에 '독수리 제2기지'(sub-base) 혹은 '전진기지'(forward base) 설치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야전팀을 한반도에 잠입시키거나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서안의 '독수리기지'로 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西安의 중간 지역에 무선중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지가 필요하였다.[99] 싸전트는 독수리 제2기지의 설치를 중국전구 OSS 비밀첩보 책임자인 헬리웰 대령에게 건의하였다. 헬리웰은 독수리 주기지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야 하며, 향후 세워질 山東 등지의 기지는 비교적 작은 기지 또는 통신중계소여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100] "산동반도에 독수리작전을 위한 전진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OSS 보고서의 내용을 볼 때, 제2기지 건설이 실제로 상당히 진척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01] 8월 6일 당시 건설 중이었다고 하는 산동반도의 '독수리 제2기지'는 일제 패망과 함께 취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맺 음 말

1940년 9월 17일, 臨政의 국군으로 창설된 韓國光復軍은 처음부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일전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임정 및 광복군 수뇌부는 연합국 특히 태평양전선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미국을 향하여 적극적인 戰時參戰外交를 전개하였다. 또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98) 로버트 마이어즈(Robert Myers), 위의 글.
99) Georgia → Sargent, 1945. 7. 8 (국편, 앞의 자료 28, p. 173).
100) 'Eagle Project', Helliwell → Krause, 1945. 7. 15(국편, 앞의 자료 23, pp. 55 ~57).
101) 'OPERATION REPORT & EAGLE PROJECT', 1945. 8. 6(국편, 앞의 자료 28, p. 253).

부정적이던 미국정부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대일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외의 한인독립운동세력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1945년 초부터 광복군과 미국 OSS의 합작훈련에 대한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광복군 第2支隊의 OSS훈련은 李範奭이 싸전트(Clyde B. Sargent)와 교섭한 결과 1945년 4월 임정과 워싱턴 OSS 본부, 중국전구 미군총사령부의 최종적인 승인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5월부터 西安 杜曲의 광복군 제2지대에 대한 이른바 '독수리작전'(Eagle Project)을 위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광복군과 OSS는 광복군 제2지대 본부에 韓美合同指揮本部(Korean-American Joint Command)를 설치하고 이범석과 싸전트가 양측의 지휘관으로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하여 갔다. 그리고 임정과 광복군총사령부도 합작훈련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이범석에게 주는 등 전폭적인 후원을 보냈다. 또한 OSS측도 자국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정승인을 유보하였지만 유능한 한인요원의 확보나 한반도에 대한 첩보침투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임정이나 광복군의 협조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럼으로써 양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갔다.

합작훈련 제1기 훈련생으로는 학병출신들과 기존의 제2지대 대원들에서 50명의 적격자들이 선발되었다. 주된 훈련내용은 장차 한반도에 침투해서 적의 주요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전으로 주중 OSS에 타전하기 위한 첩보훈련과 통신(무전)훈련이었다. 그밖에 일본에 대한 심리전 기술, 연합군의 공중폭격이나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기상학교육도 강조되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50명 가운데 12명은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탈락하고, 8월 초 38명이 약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수료하였다.

훈련 과정에서는 昆明 OSS본부와의 직접연계 문제, 언어소통 문제, 훈련생들과 교관 사이의 계급의 균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훈련이 진전되는 가운데, 독수리작전은 장차 한반도 내에서의 첩보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안 주기지 외에도 山東半島에 '제2기지'(혹은 '전진기지')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한편, 훈련을 마친 제Ⅱ기 훈련생들은 곧바로 야전에 투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8월 9일 일제의 갑작스런 패망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다. 대신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광복군 국내정진군이 조직되어 한반도 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KCI